

2025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융합특례인증 연계 지원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법령정비가 지연(예상)되거나 관련 인증 취득이 어려울 경우 융합특례인증으로 연계하여 개별 제품에 대한 신속 기준 제정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합특례인증 및 「규제샌드박스-융합특례인증(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에 대하여 관심 있는 기업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문 의 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8040-6831~6833)
홈페이지 | <https://certi-icnp.kr>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융합특례인증) 제도란?

혁신 기술 및 융합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인·허가 기준으로 인증이 어려운 융합 신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융합 신제품의 인·허가 규제 시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인증 규제 개선 제도

*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한 법정 인증 제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인·허가 규제 시차)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와 정부의 인·허가 기준 제·개정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시차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으실 경우, KC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등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KC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등의마크 부착이 가능합니다.



[인증 사례] 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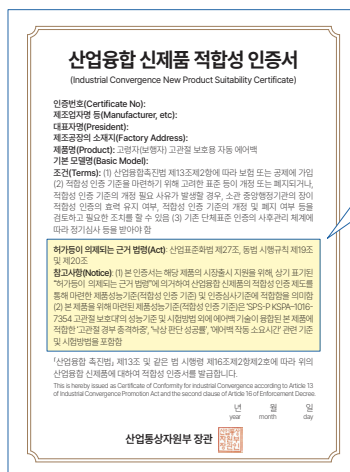
특징 모션센서와 낙상판단 알고리즘을 통해 낙상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에어백을 팽창해 고관절 상해 예방

배로 기존 표준*은 섬유소재의 벨트형 제품에 한정되어, 해당 제품과 구조 등이 상이하고 에어백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 부재로 단체표준인증 취득에 어려움 발생

* (타켓인증) SPS-P-KSPA-1016-7354 고관절 보호대

인증기준 고관절 경부 충격하중, 낙상 판단 성공률, 에어백 작동 소요시간 등 융합신제품 기술특성에 맞는 시험항목이 포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성능 및 안전성 확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허가들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Act):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표시 예시



기존 표준 대비 적합성 인증 시험·검사 항목

적합성 인증 기준	기존 표준
낙상 판단 성공률*	-
에어백 작동 소요시간**	-
고관절 경부 충격하중(3700N)	충격흡수성(패드)
원단성능(땀·마찰·견뢰도 등)	원단성능(땀·마찰·견뢰도 등)
유해물질	유해물질

* 센서가 낙상 여부를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가 바닥 충격을 받기 전 에어백이 얼마나 신속하게 전개되는지 확인합니다.